

[오피니언]

월/요/광/장

이정록



지난달 22일 정부는 2012년 세계박람회를 여수에서 개최하겠다는 신청서를 국제박람화기구(BIE)에 공식 제출했다. 이로써 여수엑스포 유치를 위한 국제적 경쟁이 본격 접전화됐다.

2010년에 이어 여수의 재도전이 시작됐지만, 유치여부는 불확실하다. 그런데 여수의 유치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국제회의 지난 5월 18일부터 20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렸다. BIE와 제네바가 공동주최한 '월드포럼'에는 엑스포에 관심있는 전세계 600여명의 전문가들이 참가했다.

포럼에 참석한 필자는 BIE 우자안민의 장의 개회사에서 큰 충격을 받았다. 그는 아프리카와 이슬람권에서도 엑스포를 개최해 제3세계 도시발전을 퍼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향후 박람회는 아프리카에서 개최돼야 한다는 강한 메시지였다. 또한 그는 박람회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제가 명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까지 여수는 폴란드를 비롯한 유럽 도시와 경쟁할 것이고, BIE 회원국들에 차명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유

리하다는 기대감을 가졌다. 그러나 모로코 탕헤르가 유치경쟁에 뛰어들면서 여수는 매우 힘겨운 상대를 만났다.

현재 우리나라와 폴란드, 모로코가 유치의사를 공식 표명한 상태다. 향후 유치

와 이슬람권 국가들을 무마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엑스포 주제의 불명확성도 약점이다. 최근 여수엑스포의 주제가 '살아있는 바다와 연안'으로 확정됐다. 그러나 주제의 메시지가 분명하지 않다. 왜 한국에서 엑스포를 또다시 개최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리와 명분을 쉽게 설명하지 못한다. 주제가 모호해서 회원국들을 쉽게 이해시키기 어렵다.

약점은 또 있다. 모로코나 탕헤르가 엑스포 유치를 위해 전개하는 활동에 대한

부는 여수엑스포에 큰 비중을 두지 않는 눈치다. 내년 대선이라는 향후의 정치일정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여수엑스포 유치여부는 중앙정부, 특히 외교통상부의 노력에 달렸다 해도 틀리지 않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소극적 태도를 적극적 태도로 바꾸는 것이 급선무다. 정부의 적극적 활동을 이끌어 낼 사람은 지역민의 성원을 받아 당선된 지자체장들이다. 박준영 도지사와 오현섭 여수시장 당선자다. 박지사와 오당선자는 엑스포 유치를 선거의 핵심공약으로 제시했다. 때문에 정부를 움직여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활동 확립, 전세계 해외공관의 대사를 손쉽게 움직일 조치와 구성, 범국민적 분위기 조성 등에 진력해야 한다. 유치지원활동 또한 두 사람이 담당할 책무다. 특히 두 사람은 엑스포 유치여부가 자신들의 정치생명에 결정적 변수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유치활동을 위한 로드맵을 재설정해야 한다.

모로코 탕헤르의 등장으로 여수엑스포의 유치경쟁이 험난해졌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 했다. 엑스포의 성공적 유치를 위해 박지사와 오당선자가 지금 당장 모로코를 방문해 보는 것이 어떨까.

〈전남대 교수·대한지리학회장〉

※ 본문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험난한 여수 EXPO 유치경쟁

경쟁은 3파전이 될 가능성이 많다. 문제는 모로코 탕헤르와의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다. 모로코 탕헤르(Tanger)는 아프리카 북서단 지브롤터 해협에 면해 있는 항구다. 스페인 남부와 뱃길로 두시간 거리며, 유럽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관광도시이다. 아프리카 카속의 이슬람 도시다.

BIE 의장의 지적을 고려하면, 여수는

모로코에 비해 분명한 약점이 많다. 탕헤르 최대 강점은 아프리카 및 이슬람권에서 엑스포 유치경쟁에 뛰어든 최초의 도시라는 사실이다. 만약 탕헤르가 개최되지로 선정되면 그동안 소외되었던 아프리카

정보의 부재다. 적을 알아야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전남도와 여수시는 탕헤르의 움직임을 거의 모르고 있다. 아프리카의 27개국에서 약 50여명이 월드포럼에 참가한 사실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엑스포 개최지는 올림픽 및 월드컵과 달리 해당국가의 훈령을 받는 외교관의 투표로 결정된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적극 노력하면 세계 11위 경제대국인 '코리아'의 지명도를 바탕으로 탕헤르와 경쟁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런데 현재의 정

시설

협상내용 공개로 한미 FTA 갈등 없애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1차 본 협상이 오늘부터 시작된다. 양국은 서울과 워싱턴을 오가며 연말까지 세 차례의 협상을 더 가질 계획이다. 그러나 양국 이해가 엇갈리면서 접두하게 대립하는 분야가 적지 않아 협상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1차 본협상을 앞두고 공개된 미국 측 협상 초안은 '덜주고 더받겠다'는 노골적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무엇보다 농업과 섬유 분야를 상품분야 협상과 별개로 논의하자는 미국 측 제안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양국에 민감한 이들 분야를 특별히 분리하자는 제안은 그만큼 이 두 분야에서 자국 이익을 관찰시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아닐 수 없다. 배기량 기준이 우리와의 자동차 세제를 미 국식으로 고치라고 요구할 정도다.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치밀한 전략과 유연한 협상력이 요구된다. 이번 협상의 중요성을 감안해 정부는 비공식 대표까지 포함해 300여명의 매머드 협상 단을 파견했다. 그러나 과거 국제통상 협상 과정을 돌아볼 때 우리의 협상력에 일말의 불안감을 갖는 국민들이 적지 않다. 면밀한 협상 전략과 함께 협상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정도다. 한미 FTA 반대 여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협상 내용을 자세하게 밝히는 것이 좋다. 협약내용을 비공개하다가 농민들에게 피해를 입힌 한·중 마늘협상을 타산지로 삼아야 한다. 필요할 경우 수시로 공청회를 여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다.

한미 FTA는 한국 경제와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엄청난 대변혁을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도전인 것이다. 따라서 국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초기 협상 과정에서부터 모든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야 마땅하다. 독불장군식으로 정부 협상을 마무리 짓고 그 뒤에야 협상 결과를 통보하는 방식은 더 이상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는다.

노대통령의 5·31民心 해석 걱정스럽다

우려했던 대로 노무현 대통령이 5·31 지방선거 결과를 애써 외면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노대통령은 충격적인 여당의 패배로 투표를 한 국민들 스스로도 놀라고 있던 선거 다음날 "민심의 흐름으로 받아들이겠다" 정도의 진조한 코멘트를 했다. 이어 노대통령은 지난 주말 정부 정책홍보담당자들과의 토론회에서 "선거참패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한번의 선거가 나라의 희망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는 말과 함께 캐나다 멀루니 전 총리의 예를 들어 인기 없는 정책을 폐기하거나 침체했지만 그 덕으로 캐나다가 재정위기를 넘겼다는 예를 들기도 했다는 것이다.

비슷한 시점, 노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낸 열린우리당 문희상의 원이 "선거 결과는 '탄핵'이며 국민이 당을 해체하라면 그렇게 해야 한다"는 통렬한 반성을 한 것과 비교하면 노대통령의 현실 인식은 어처구니 없다는 생각이 국민 누구에게나 들 것이다.

3당 합당 반대, 평민당 후보로 부산 총선출마등 인기와 시류에 영합하지 않고 살아온 노대통령의 내력이 이 같은 심리상태를 만들어 내고는 모르겠으나, 지방선거 결과를 단순히 열린우리당의 정책에 '여러석은 국민'들이 반대해 빚어진 결과 정도로 대통령이 인식하고 있다면 이건 큰문제다.

이번 여당의 참패는 국민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여당의 정책들에도 원인이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건 노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집권세력이 국민을 소득과 지역과 세대와 이념으로 편파하고 이들 사이에 갈등을 부추기는 언행을 일삼는가 하면 경제를 어렵게 해 국민의 희망을 없애버렸기 때문이다. 여당의 원이 선거결과를 '탄핵'이라고 해석하는 건 때늦은 자각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대통령이 '소신'을 굽히지 않는다면 그건 또 다른 '오기'에 불과하다. 남은 임기동안 또 무슨 갈등이 터질지 걱정스럽다.

無等鼓

조지 W. 부시 현 대통령을 포함해 미국은 지금까지 42명의 대통령을 배출했다. 그중 최선·최악의 대통령은 누구일까.

여론조사 전문가인 윌리엄 라이딩스와 스튜어트 맥기버가 '리딩디스 매기' 대통령 여론조사팀을 구성해 역대 대통령 평가에 나선 것은 지난 1989년. 이 해는 조지 워싱턴이 미국 초대 대통령에 취임한지 꼭 200년이 되던 해였다.

미국과 캐나다 각 분야 학자 700여명이 참여한 이 조사를 통해 빌 클린턴까지 모두 41명(조지 W. 부시 제외)의 역대 대통령 랭킹이 발표됐다.

미국 역사의 영웅들인 에이브러햄 링컨, 프랭클린 루스벨트, 조지 워싱턴, 토마스 제퍼슨, 시어도어 루스벨트가 1위부터 5위까지 차지해 상식에 올랐다.

관심사는 오히려 끌찌찌이었다. 그 불명예는 29대 대통령 워런 하딩에게 돌아갔다.

1차대전 종전 직후에 취임한 그는 '오하이오'라고 불리우는 측근들에게 휘둘렸다. 사면과 가석방, 정부 공사, 공

직, 심지어 정부 창고의 술까지 돈이 되는 모든 일에 측근들이 개입됐다.

도덕적 타락은 정책 실패로 연결됐다. 그는 국민들의 비난 속에 알래스카로 휴가를 갔다가 급사했다. 2년에 불과했던 재임 기간이 국민들에게는 다행인 격이었다.

제임스 뷔캐넌, 앤드류 존슨, 윌리엄 스 그랜트, 프랭클린 피어스가 최악의 대통령 행렬의 뒤를 이었다. 도청 사건으로 사임한 리처드 닉슨은 32위, 성 스캔들로 주인공 빌 클린턴은 중간 성적인 22위에 랭크됐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도덕성 분야에서는 최하위 평가를 받았다.

이라크전에 발목을 잡혀 지지를 하락에 헤매고 있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1945년 이래 최악의 대통령으로 선정됐다. 미국 퀴니피액대의 지난달 여론조사 결과다.

영국 속담에 "왕이 길을 잊고 해매면 백성들이 그 대가를 치른다"는 말이 있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 아니겠는가.

/오주승 정치부장 jsok@kwangju.co.kr

사막과 사막화

연일 황사관련 기사가 보도되기 시작한 3월, 한 신문기사가 눈에 띄었다.

포크와 나이프를 사용하는 서양인들은 달리 저거락 사용을 일상화하고 있는 동양인, 특히 중국인이 사용하고 있는 나무젓가락 때문에 숲이 사라지고 사막화가 가속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한국 평균 2천500만 그루의 나무가 나무젓가락으로 만드는데 소비되며 버려지는 나무젓가락 수는 450억 쌍이나 된다는 것이다.

중국정부에서는 나무와 숲을 보호하기 위해 나무젓가락에 5%의 세금을 부과하여 소비를 줄이도록 유도하는 한편 규모 나무심기계획을 수립하여 산림

보전방안을 논의하여 왔다.

카드뮴, 크롬 등 유해물질을 함유한 황사가 대기흐름을 따라 국경을 넘나들며 주변국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사례를 보더라도 이제 환경문제는 더 이상 국내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지구적인 문제로 되어 있다.

사막화는 분명 세계적인 차원의 재앙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막화 방지 및 생태복원을 위한 국제적인 공동노력을 필요하지만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나무젓가락 등 1회용품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사막화를 가속 시킬 수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더 잘 살아가는 하나뿐인 소중한 지구, 이 소중한 지구를 온전히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 한그루 나무를 심어보는 건 어떨까 한다.

〈영산강유역환경청장〉

광고물 부착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필요하다

최근 1톤 화물차량을 이용, 유통업소의 가격·안내문 등을 표시한 채 해당 업소 앞 인도와 차도에 주·정차시켜놓는 경우가 많다.

건물이나 차량에 광고물을 부착, 홍보하는 일종의 래핑(wrapping)광고 형식으로 사람들의 주목을 끌기 쉬워 업소마다 이러한 차량 광고를 치열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차량들이 비좁은 도로나 인도를 가리지 않고 주·정차되면서 교통 흐름을 방해, 체증을 유발할 뿐 아니라 보행자들은 아래 인도 대신 차도를 이용하기도 한다.

신고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당국의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하다.

▲주정완·광주시 서구 벽진동

영화관 자리 배열 '가나다...' 순으로 했으면

얼마 전 광주시내 한 극장에서 영화표를 구입해 상영관에 들어가는데 50대 아주머니가 "자리를 못 찾았는데 찾아주소"라며 도움을 요청했다.

영어로 표기해놓은 좌석 배열 방식 때문에 자신의 자리를 찾는데 힘들어한 것이다.

'ABC...'로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영화를 보겠느냐는 생각을 갖는다면 할 말이 없다.

▲이태옹·광주시 서구 서창동

◇ 채택된 원고는 고료 드립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도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光州日報

| 회장 許宰皓 | 사장 편집·발행·인쇄인 白仁鎬 | 편집국장 池炯源 |
|--|------------------------------------|-----------------------------|
| 1952년 4월 20일 创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 www.kwangju.co.kr |
| 대표전화 2200-500-222-8111 | 시 회 2 부 2200-619 | 총 무 부 2200-511 |
| 〈F A X 222-4918〉 | 〈F A X 227-0118〉 | 문화사업국 2200-541 |
| 편집 부 2200-629 | 문화생활부 2200-626 | 광 고 국 2200-521 |
| 정 치 부 2200-616 | 여론분석부 2200-628 | 판 매 부 2200-551 |
| 경 제 부 2200-617 | 체 육 팀 2200-663 | 〈F A X 227-9500〉 |
| 사 회 1 부 2200-618 | 사 진 부 2200-690 | 디자인 2200-536 |
| 〈F A X 222-4267〉 | 총무부 2200-570 | 서울 지사 02-773-9331 |
| | | 시 앱 2 부 2200-552 |
| | | 〈F A X 02-773-9335〉 |
| | | ※ 구독료 월 8,000원 1부 400원 |
| | |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